

2017년 5월 17일, 조천읍 와홀리 임완송 씨 덕, 강수경 조사.

임완송(남, 1933년생, 조천읍 와홀리)

- 줄거리: 어떤 사람이 와홀로 오는데 반짝하면서 도깨비가 나타났다. 그 사람은 도깨비를 잡아서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왔다. 다음날, 꺼내 보니 붉은색 형겔에 감아진 말뚝이었다.

[조사자] 저기 도체비 얘기, 도체비 얘기도 뭐 재미난 거 아는 거 잇수광?

[제보자] 그 도체비는 들어났는데, 우리 어렸을 적에 아버지네 그 시절 그분네들이 앉아서 그 도체비 말을 하는데. 어떤 분이, 게난 지금은 전기 때문에 모든 차량 뭐 전기 때문에 도체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맥을 쓰진 못해가지고서 나오지 못허는 지는 몰라도, 그 시절엔 불도 엇고 야튼 어둡으은 불 썬 데는 등피불도 등피불, 아니문 각제기불 요만한 것에 내가지고서 쓰는 거, 그 불을 싸서 살았는데, 그렇게 허는 어둡은 시절이라 아이고 밤중에 다니다가 혼자 다니다가 도체비 난다고. 도체비는 원고허게 되든 뽕뽕뽕뽕하면서 그냥 사름도 막 그냥 흘려가곡 사름을 그냥 춤 그냥 정신적으로 막 그 흘려, 흘려간다는 말은 막 그 데려간다는 말이 죠. 그렇게, 그렇게 험다고 그렇게 허면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.

어린 때 그 말을 들은 말인데. 어떤 사람이 조천에 가서 와홀로 올라오는데, 와홀로 올라오는데 아 도체비가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나타나가지고서 허니까. 아 그 도체비를 꼭 심어가지고서 그냥 아 그냥, 그거 그냥 그 도체비 눈에 보이기만 그렇게 막 그 사람같이 보이고 구신같이 보이고 헤가지고 그렇게 짐승같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뽕뽕뽕뽕 그랬지. 아 어떻게 힘은 없는 건지 도체비를 심어가지고서 그냥 손에 뽕뽕 몰아가지고서 보것디 담아가지고 보금지에 와서 뒷 날은 꺼서 보니까 무슨 물뚱, 뚱에다가 붉은 험벅세기가 감아진 거더라고 그런 말이, 그런 말을 들은 예가 있습니다. (웃음)

[조사자] (웃음)

[제보자] 옛날은 아이 어둡으은 혼자 나가지 말라고 더구나 어리니 도체비 난다고. 무섭다고. 그 도체빌 하나이 구신같이 야튼 그 무섭게 생각허는, 헤난 모양이지요 뭐.

[제보자] 아, 그건 우리가 훈 여남은 살 때 아버지네 그 중 연령 그 어른덜이 얘기허는 거를 들은 말이죠 뭐.

- 핵심어 : 도체비, 도깨비, 보금지, 물뚱, 말뚱험벅세기, 조천, 와홀, 구신, 귀신, 주머니